**Javascript Web Projects – 1**

자바스크립트 웹 프로젝트로 프론트 엔드 개괄하기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포스팅을 진행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는 백엔드 엔지니어를 목표로 C와 자바 등을 공부했다. 비전공자이며, 기존에 알고있던 프론트 관련 지식은 HTML/CSS는 정적 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페이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정도가 전부이다. IDE로는 이클립스 – 인텔리제이 – vim을 거쳐 현재는 neovim을 사용 중이다. 굳이 네오빔을 쓰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다 얘기하면 사족이 길어지니 그냥 관심이 가서 그렇다고 해두겠다.

한 가지 이유만 들자면 처음에 이클립스를 쓰는데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IDE를 사용하며 답답함을 느끼고는 했었다. 자바에서 메인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컴파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클립스를 깔아 시작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당시에는 IDE가 알아서 패키지를 관리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몰라 답답했다. 만약에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없이 그냥 운영체제와 자바, JDK만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될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허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구글링을 하다가 알게 된 게 vim이다. 처음 맥 OS의 터미널에서 코드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배워 나갔다. 물론 그냥 그 정도였다면 지금까지 쓰고 있지는 않았을 테지만… 아무튼 간에 vim은 불편하다. 하지만 빔을 쓰다 보면 불편한 듯 하면서 그 단축키 체계에 익숙해져 가며 묘하게 편한 듯 하면서도 또 불편한 그런 관계를 이어 나가게 된다. 아무튼 올해 1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한 달간 매우 치열하게 빔을 써야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그렇게 빔에 길들여진 나는 이후에도 네오빔에 플러그인을 설치해 개인화된 IDE를 구성해가는 처지에 놓였다. IDE의 공통적인 부분들(커맨드 자동완성, 파일트리, 인스펙션…)들을 모듈 단위로 설치하며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건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러그인들은 node.js기반에서 동작하는데 나는 node.js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는 정도만 알았지 정확히 뭔지는 몰라 시키는 대로 설치하고 실행만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바스크립트에도 관심이 갔다. 백엔드를 공부하는 와중에도 자바스크립트는 계속 등장했다. 코딩 문제를 풀다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되는 것처럼 스프링을 배우려 하니 JSON이 등장해 이쯤에서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를 훑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다.



한 가지만 말하겠다고 해놓고 다 말했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백엔드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프론트 지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포스팅은 나처럼 백엔드를 공부하며 프론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업로드 주기는 없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이드 공부라서 프로젝트 난이도가 너무 상승하면 포스팅 빈도가 줄어들 것 같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끝낼 때 쯤에야 내 깃허브 블로그가 완성될테니(3/31 시점) 일괄 포스팅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해당 시리즈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질 것이다. 시작해보자.

Html과 css로 텍스트를 편집하던 기존의 웹을 정적 웹이라고 한다. 웹수요는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더 다양한 기능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했다. 텍스트의 정적인 레이아웃으로 머물러있던 HTML/CSS에 더해 자극에 반응하는 로직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함수, 명령, 조건, 반복, 분기문 등과 변수, 데이터를 포함하는 속성을 가진다.